



5면

"강한 경제 전주, 전라도수도로"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음 6월 16일) 제305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발암물질 라돈 관리강화 착수

2024년 6월까지 11억7800만원 투입  
도, 환경부와 관리계획 수립 합동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의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전북도는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라돈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환경부와 전라북도 간 공동합약을 체결했고, 올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1억7800만 원을 투입해 라돈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먼저, 환경부 주관으로 원주군을 비롯한 도내 주택 3000여호에 대한 실내 라돈 조사와 토양, 암석 등 250여 지점에 대한 라돈 노출요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내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차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특성에 맞는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북도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라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 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라돈 농도 조사·분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북도는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도민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도의 라돈 정밀조사 및 관리계획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주택 실내 라돈 실태조사 결과 우리 도의 평균 실내 라돈농도는 85~102Bq/m로 권고 기준(148Bq/m)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은 암석, 토양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우리 도는 화강암 지질 특성과 고령층 인구비율이 높아 자연환경 미질시 등이 주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도 환경복지국장은 환경부 주관 라돈 조사·분석 단계부터 시군과 함께 라돈관리강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라돈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장 손쉬운 라돈 저감 방법인 '1일 3회 30분 이상 주기적 인 환기'의 중요성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비 내리는 한옥마을... 비를 피하는 시민들



시원한 여름비가 내린 1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며 길을 지나고 있다.

## '학생중심 미래교육, 업무방식 변화부터'

서거석 교육감, 전직 교육감 흔적 지우기 적극 나서  
현장 요구 수용·조직 개편 통한 인사 혁신 등 언급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원들이 아직도 전임자 시절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전직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에 적극 나섰다. 서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간담회를 통해 당선이후 한달 여가 지난시점에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인사말도 올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각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시도하는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임자의 언론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제부터는 정례적인 만남을 통한 언론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변인 등 공보실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이어, 8월부터 한 학기에 1회 정도



도내 14개 시군을 방문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능력있는 퇴직 교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자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 혁신도 언급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현 도교육청 직원들의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지적하며, 심지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인수인계 절차도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 참여기업 2차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규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지구내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을 통해 3개의 지원항목(프리프로덕션, 6차산업연계형, 단일패키지형)에 총 18개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중 6차산업연계형과 단일패키지형은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지정 반경내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 관련 기업과 정부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기관,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다. 지원은 6차산업연계형, 단일패키지형 가운데 1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6차산업연계형의 경우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수기자

## 도내 올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첫 검출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만에

독감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2년 반 만에 도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독감에 대한 도민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는 매년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 5일 채취된 검체로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H3N2 형으로 확인됐다. A/H3N2 유형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매년 겨울봄에 걸쳐 유행하던 바이러스였으나 도내에서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는 고열(38°C 이상)을 동반한 두통, 기침, 피로감 등 전신증상을 동반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수 기자

활차 & 힐링이 있는 남원 여행

# 남원의여름



|| 숲에서 휴식 운동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로지 || 나무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뱀사골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